

한우 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4년 2월호

기획특집

2014 한우산업을 전망한다

현장르포

‘한우 직거래장터’를 가다

이슈

한우농가 경영안정대책

— 해외 농가소득안정 제도를 중심으로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기획특집 03-05

2014 한우산업을 전망한다

포커스 06-07

한우 마블링의 오해와 진실

릴레이인터뷰 08-09

‘FTA무역이득 공유제’ 발의 - 홍문표 국회의원

현장르포 10-11

‘한우 직거래장터’를 가다

이슈 12-13

한우농가 경영안정대책
- 해외 농가소득안정 제도를 중심으로

Information 14-15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마릿수 유지방안 연구용역

Information 16-18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KREI 축산관측 19

2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1

새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Bravo! Life 22

떡국의 유래와 의미

화보&애독자코너 23

농업전망 2014 - 한우부문

사육마릿수 지난해보다 4.9% 하락한 277만마리 예상 도매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농가 순이익 1⁺⁺출하 제외하고 모든 등급서 적자

등급 간 가격차이도 커...고급육 생산노력 필요

올해 한우산업은 송아지 입식의향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육마릿수가 감소해 도매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난해 한우농가는 소값 하락,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출하등급 간 가격차이가 커 고급육 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농업전망 2014'를 개최하고 최근 한·육우 사육동향과 올해 수급 및 가격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

한·육우 사육마릿수
4.9%↓ · 도매가격 5.3%↑

올해 한·육우 사육마릿수를 송아지 생산 감소와 도축 증가로 지난해 292만마리보다 4.9% 감소한 277만마리가 될 것이라 농경연은 예상했다. 지난해 농가의 번식의향 위축으로 압소 도축이 늘고, 송아지 생산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내산 쇠고기 공급 감소가 예상되며 한우 평균 도매시장 가격이 kg당 1만3,420원으로 지난해 1만2,742원보다 5.3%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줄어든 송아지 사육마릿수의 영향으로 2015년은 1만4,126원, 2018년은 1만4,899원, 2023년은 1만5,038원으로 당분간 도매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육마릿수가 증가할 경우 한우 도매가격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리당 생산비 558만원...1등급 가격은 466만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한우 도매가격 등을 토대로

한우 비육우 농가소득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비육우 농가 순수익은 1**등급을 출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등급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농가가 비육우 한 마리(600kg 기준)를 출하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비는 밀소 가격, 사료비, 방역비, 수도·광열비 등을 포함해 447만원이다. 여기에 자가노동비(60만원)를 비롯해 자본과 토지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마리당 생산비는 558만5,000원이 된다.

하지만 도매시장 출하가격은 1**등급 602만3,000원, 1*등급 522만원, 1등급 466만4,000원, 2등급 379만4,000원, 3등급 302만6,000원에 불과해 출하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농가 순수익은 1**등급을 출하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등급 출하 시 마이너스 36만5,000원, 1등급 출하 시 마이너스 92만1,000원 등 모든 등급에서 적자다.

번식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번식우 마리당 농가소득은 2003년 150만원에 육박했지만 2010년 적자로 돌아서 10년만인 지난해에는 마리당 60만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높은 사료가격과 낮은 송아지가격으로 암소 도축이 늘고, 농가의 번식의향이 낮았던 영향으로 분석했다.

등급간 소득차도 커...1**~3등급 300만원 차이

이와 함께 지난해 도매시장 kg당 지육 등급별 경



락가격 차이는 1**등급과 1*등급 2,242원, 1*등급과 1등급 1,553원, 1등급과 2등급 2,430원, 2등급과 3등급 2,143원으로 조사돼 1**등급과 1*등급을 제외하고는 가격차이가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등급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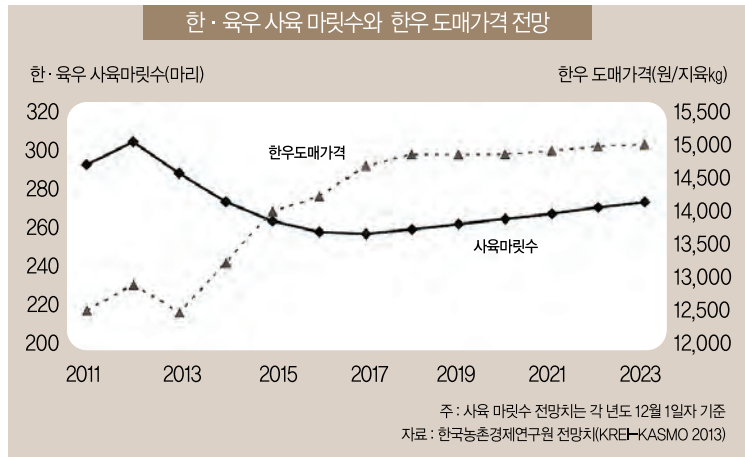
이날 '한육우 수급동향과 전망' 발표를 맡은 이형우 농경연 전문연구원은 "한우농가 수익성이 등

쇠고기 수급과 가격 전망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8년	2023년
생산 (천톤)	257	238	221	204	239
수입 (천톤)	255	279	294	330	333
1인당소비 (kg)	10.2	10.3	10.3	10.5	11.1
한우 자육가격 (원/kg)	12,742	13,420	14,126	14,899	15,038

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1⁺⁺등급과 1⁺등급의 마리당 등급간 소득격차는 80만원, 1⁺⁺등급과 3등급 사이에서 최대 3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우산업은 규모화가 진행되어 대농을 중심으로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로 한우 사육마릿수 변화 주기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우 소비 촉진행사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 늘어

이와 함께 적극적인 한우고기 소비 촉진행사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경연이 지난달 4~8일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을 늘렸다고 응답한 빈도가 전년 49.2%에서 5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열린 한우 할인행사 등 각종 소비촉진행사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일정 규모의 소비의향을 유지하는 반면 수입 쇠고기 구매는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우 및 수입 쇠고기 등심에 대한 지불의향에서도 한우 1등급 냉장 등심은 600g기준 1만9,093

원, 미국산 등심은 6,676원, 호주산은 7,56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높은 평가가 확인됐다. 다만 수입산에 대한 한우고기의 소비자 지불의향은 전년대비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국제 쇠고기 가격은 수입단가 상승이 예상되나 관세 인하와 환율 하락 등으로 쇠고기 수입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산 냉동 쇠고기의 kg당 도매원가는 지난해보다 0.3% 하락한 8,251원으로 추정됐으며 호주산 쇠고기는 지난해보다 1.8% 상승한 8,640원으로 예상됐다.

한편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10.2kg에서 올해와 2015년 10.3kg, 2018년 10.5kg, 2023년 11.1kg으로 예상됐다. ㉮

한우 도매가격과 비육우 소득 추정

등급	도매가격 (kg/원)	가격 (A) (600kg 기준)	2013년(추정치)		소득 (A-B)	순수익 (A-C)
			경영비 (B)	생산비 (C)		
1 ⁺⁺	16,816	6,023	4,470	5,585	1,553	438
1 ⁺	14,574	5,220			750	-365
1	13,021	4,664			194	-921
2	10,591	3,794			-676	-1,791
3	8,448	3,026			-1,444	-2,559

한우고기 예찬

한우고기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

※ 이 기고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제작한 '한우고기 예찬' 중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연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내용을 책자로 발간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한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8년 봄, 대한민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로 온 나라가 뜨겁게 들끓었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로는 매일 밤마다 광화문 거리를 밝혔던 그 촛불들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다. 필로가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우리나라 한우농가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농촌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부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는데, 옆친 데 뺏친다고 미국산 수입육의 재개는 농촌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것을 보듯 뻔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 필로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한우사육을 포기한 농가의 수는 전국적으로 5만호이상에 이른다.

채식위주는 영양불균형 초래

2008년 봄에 필로가 가슴이 아팠던 또 다른 이유는 촛불집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고기를 먹지말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극열한 채식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육식을 하지말자'라는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을 보고 식육학자 필로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우리나라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육류

의 섭취량이 가장 적은 나라이며, 우리나라처럼 채식을 잘하고 있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런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더욱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영양불균형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필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미국사람들처럼 무작정 많이 먹자는 주장은 아니다. 세계 제1의 장수국인 일본이나 홍콩, 또는 건강한 장수를 누리고 있는 유럽 수준으로 우리의 식육섭취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기도 아무 고기나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땅에서 기른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것을 먹자는 것이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고기가 맛있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필로가 한우고기를 예찬하는 이유다.

가공·인스턴트 식품이 비만의 주범

채식주의자나 동물보호가들처럼 육식의 위해성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사람들은 최근 남미국가들의 비만인구 증가가 과다한 육류의 섭취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확실히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남미국가들의 육류소비량은 근래에 부쩍 증가하였고 비만인구도 급증하였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육류를 소비하고 있는 유럽국가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필로는 이 차이의 원인이 남미와 유럽의 육류소비 경향이 다른 점에 있다고 본다. 즉, 남미국가에서는 값이 저렴한 저급육의 소비가 많은 반면, 유럽국가

주선태 교수(경상대 축산학과, 필명 : 필로)

에서는 값비싼 고급육의 소비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은 유럽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남미국가들에서 소비하는 육류음식의 주류는 저급육을 지방과 함께 같은 고기를 기름에 튀긴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타코’나 ‘브리또’ 같은 멕시코 음식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주로 이런 음식은 인스턴트식품으로 소비된다.

이 같은 경향은 육류소비량이 매우 많은 미국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다. 미국의 중산층들은 쇠고기를 주로 등심이나 안심 위주의 스테이크로 소비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들은 햄버거도 직접 신선냉장육을 사다 같은 후, 불에 구운 바비큐로 만들어 먹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맥도날드로 대변되는 인스턴트식품이 주식이 된다. 햄버거도 저급육을 지방과 함께 갈아 만든 고기에 향신료를 넣고 기름에 튀긴 패티로 만든 것을 먹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육류소비량이 비슷한 두 집단의 결과는 건강한 신체와 비만한 신체로 나타난다. 미국사회에서 빈민층으로 갈수록 비만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우소비는 애국애족이다

소고기는 우리나라처럼 먹는 것이 건강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 전통의 소고기 요리법처럼 신선육의 상태 그대로 조리하여 먹는다면 절대로 비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필로의 믿음이다.

축산업은 이미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자 대규모 생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이 된 지 오래 되었다. 한번 사육기반이 붕괴되면 다시 일어서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린다. 아니, 갈수록 극심해지는 국제식육시장의 경쟁과 견제에 비추어보면, 한번 사육기반이 무너지면 영원히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입맛은 순진하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던 사람은 맛있고 나쁜 음식은 먹기 싫어한다. 만약 맛있고 좋은 것을 먹던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맛있고 나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비참해서 죽고 싶어진다. 필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서라도 우리나라 한우산업의 일정부분은 필히 지키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대한민국이 한우산업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맛있고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은 한우고기를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비를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필로가 한우고기를 예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자 이유이다. ☺



무역이익 일정분 공유 피해산업에 지원 골자

'FTA 무역이득 공유제' 대표발의

경제민주화 · 동반성장과 일맥상통 법안



지난해 호주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해 중국과의 FTA 협상 가속화 등으로 농축산업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축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FTA 이행에 따른 무역이익이 발생한 산업으로부터 일정분을 공유해 FTA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홍성·예산)의 대표 발의로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발의한 홍문표 의원을 만나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의 필요성과 한우 등 축산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들어봤다.

FTA 축산피해 불가피... 분담해야

홍 의원은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FTA체결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농민들의 반대와 피해 또한 매우 심했다"고 운을 뗐다.

국제 사회에서 이미 다국적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TA를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전제하에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에서다.

홍 의원은 "축산업 생산액은 2012년 18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하고 있고, 농업생산액의 상위 10대품목 중 축산물이 무려 6개이며, 육가공 등 연관 산업 규모만 해도 58조원에, 종사 인원이 56만명에 달한다"며 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다국적 FTA로 인한 피해, 구제역 등 가축

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 축산업에 집중

농축산업 15년간 12조6,000억원 손실 예상



질병증가, 무허가 축사 및 분뇨기준 강화로 인해 사육여건이 악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우리 축산업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홍 의원은 “어떤 산업이 이익을 보는 반면 농축산업은 15년간 12조6,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 한·미 FTA”라며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인 농축산업분야를 위해 이익의 일부를 분담해 지원하자는 내용의 FTA 무역이득 공유제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 동반성장과 일맥상통

일부 부처나 업계의 FTA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반발이 많지만 사회적 기업정신, 상부상조 등 감성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FTA 무역이득 공유제야말로 경제민주화, 동반성장과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FTA가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이익을 보는 국민이 있고, 손해를 보는 국민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이익의 일부를 농촌, 농축산인을 위해 기부금 형식으로 피해를 보는 농축산분야를 지원하자는 FTA 무역이

득 공유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족산업 한우산업 지키기에 최선 다하길

홍 의원은 새해를 맞아 한우농가에게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축산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축산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축산인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한우를 포함한 축산업이 국민 모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홍의원은 “저 또한 앞으로도 우리 농어촌·농축산인이 잘 살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한우를 생산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민족 산업인 한우산업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그는 “농축산인이 잘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선진축산 국가로 가기 위해선 △사료자급을 제고 △국내 가축환경에 맞는 백신 생산을 통한 질병 예방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축산환경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㉔





현장르포



'한우 직거래 장터'를 가다



설명절 청계광장 한우 직거래장터 '대성황' 온 국민 보양식 '한우사랑' 실감

부위별 50%까지 할인...소비자 부담 줄이고 생산농가도 돕고

한우지킴이 이승기 씨 시식행사 등 각별한 애정 과시

설 명절을 맞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우 직거래장터가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대성황을 이루며 한우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을 실감케 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1월 27~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등심, 안심, 국거리, 불고기, 사골 등 부위별로 50%까지 할인을 한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영난에 허덕이는 한우 농가를 도왔다. 부담없는 가격에 맛 좋고,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구매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행사 첫 날의 모습을 담아봤다.



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흡족해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우자조금의 서정훈 홍보마케팅팀장은 "11시에 판매를 시작하는데 6시30분부터 줄을 서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다"며 "소비자들이 맛과 영양이 뛰어난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해 즐거운

추운 날씨 불구 한우 구매열기로 '장사진'

행사가 시작되는 11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행사장은 조금이라도 빨리 한우를 구매하려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쌀쌀한 날씨와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줄을 선 이들에게선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아침부터 기다렸다", "빨리 판매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아우성도 곳곳에서 들렸다. 할아버지와 함께 오셨다는 할머니 한분은 "평소 좋지 않던 허리가 아픈 탓에 잠시 쉬고 있다"며 "할아버지가 줄을 서고 있으니 이번 설에는 맛있는 한우를 가족들과 함

께 먹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흡족해했다.

우수한 품질 한우를 부담없는 가격에

이번 행사에서는 1등급 100g 기준 국거리와 불고기가 2,300원, 등심이 5,600원에 판매되는 등 부위별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으며 맛과 품질로 정평이 난 전북 완주 '고산昧소'와 경북 의성 '마늘소' 브랜드가 신선했던 한우고기를 공급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렇게 한우를 구매한 이들은 영수증을 들고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줄을 선다. 행사장 한켠에 한



우선물세트, 한우저금통 등 품성한 선물이 준비된 웃놀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다.

웃놀이 이벤트에 참여한 한 여성 고객은 “평소 한우를 좋아했는데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다 이번 기회에 직거래장터를 찾았다”며 “부담없는 가격에 한우고기도 사고, 재미있는 이벤트에 참여해 기념품을 받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우지킴이 이승기 씨…장터분위기 더해

잠시 후 가뜰이나 북새통을 이룬 청계광장은 인기 연예인이자 한우지킴이 이승기 씨의 등장으로 들쭉이기 시작했다. 한우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이승기 씨는 이날 소비홍보와 판매에 나서는 한편 시식행사에서 직접 고객들에게 한우 불고기를 먹여주는 등 한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 씨와 함께 한우 소비홍보와 시식행사를 진행한 강성기 위원장은 “설을 맞아 온 국민의 보양식인 한우로 뜻 깊은 명절을 보내자는 취지에서 이번 직거래장터를 기획했다”며 “생산농가도 돕고, 소비자도 부담없는 가격에 한우를 즐길 수 있는 이 같은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인터뷰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사무국장

“점심전 준비물량 소진…한우사랑 실감”



“점심도 되기 전에 준비한 물량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직거래장터에 처음 참여했는데 소비자들의 호응에 놀랐습니다.”

‘고산昧소’ 브랜드로 잘 알려진 전북 완주한우협동조합의 박일진 사무국장은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놀람과 동시에

한우고기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높은 생산비에 낮은 소값으로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크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한우고기 가격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죠. 직거래장터와 같은 직거래가 활성화돼야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김홍길 의성마늘목장 대표

“한우농가 살리려면 소비활성화 급선무”



“물량을 많이 준비했는데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보게 돼 기쁘면서도 마음이 놓입니다. 한우 소비가 이렇게만 늘어준다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길 경북 의성마늘목장 대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소비 활성화가 급선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마늘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의성마늘목장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합인행사를 진행하며 한우 소비활성화에 앞장섰다.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우소비를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지름길은 맛있고,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으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비육우 · 번식우로 구분된 해외 농가소득 안정장치 수급 조절...산업 영속성 유지 '좋은 평가'

번식부문 '송아지생산안정제' 시행 불구 실효성 논란

비육부문 제도 마련 등 해외사례 '본보기' 소득안정 장치 도입해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이 한우산업의 최대 화두가 되면서 해외의 제도 · 사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우자조금이 발주한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마릿수 유지방안' 연구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일본의 경우 육용우 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과 육용우 번식경영안정지원사업, 육용우 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 등이 있으며, 미국은 가축 총수익보험, 가축위험보호, 캐나다는 농업투자계정,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러한 형태의 농가 소득안정 장치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각국의 농가소득 안정 제도를 살펴보고,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소개한다.



일본

농가경영안정을 목표로 제도 마련

일본의 소 및 쇠고기 정책은 사육 농가 경영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육용우 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육용우 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신 마루킨 사업)은 조수입이 가축노력비를 포함한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와 국가가 1대 3의 비율로 거출한 예산을 사용해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일종의 보험 성격이 강한 육용우 비육농가 소득안정 장치다.

육용우번식경영안정지원사업

육용우 번식농가를 위한 육용우번식경영안정지원사업도 이와 유사하다. 분기별 육용송아지평균 매매가격이 경영비와 가축노동비의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4분의 3을 보전토록 발동되며 보증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에 의한 지원이 더해져 농가 손실을 최소화한다.

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

아울러 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제도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송아지 가격 하락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증기준가격을 설정, 송아지 가격이 보증기준가격 이하에서 형성될 경우 생산자보급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농가 생산비 절감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배합사료가격안정대책사업 및 곡물비축제도, 육류가격 안정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다.





미국

수익 및 보장가격 제시

미국의 경우 농가총수익과 관련한 소득안정 정책이 시행중이다.

가축총수익보험(LGM, Livestock Gross Margin)

육용우와 젖소, 돼지에 적용되고 있는 가축총수익보험(LGM, Livestock Gross Margin)은 판매 가격에서 가축비와 사료비용을 뺀 총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가축위험보호(LRP, Livestock Risk Protection)

가축의 시장가격 하락에 의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위험보호(LRP, Livestock Risk Protection)를 시행하는데 육성우, 비육우, 돼지, 양 등의 축종에 적용하고 있다. 농가들은 보장수준과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이 보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는다.



캐나다

농업투자계정,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

캐나다에서는 저축예금 형태로 농가의 소규모 소득감소 시 이를 보장하는 농업투자계정(Agri-Invest)과 농가의 대규모 소득감소 시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안정프로그램(Agri-Stability), 생산량이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보험(Agri-Insurance) 등이 존재한다.

농업투자계정

농업투자계정의 경우 농업인과 정부가 각각 기금을 예치해 농가의 소득감소 시 사용되며 정부의 예치금을 우선 사용한다.

농가 소득에서 농업비용을 뺀 금액이 이전 5년간 이윤의 최저와 최고를 뺀 평균 기준 이윤의 85%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는 농업소득안정프로그램이 발동되며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6:4로 분담한다.

농업보험

이 외에 농업소득보호법에 근거해 생산량 변동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한 품목별 소득 안정 대책으로 농업보험도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농가 79.6% 보험제도 가입필요 응답

우리나라의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통한 번식부문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며 비육부문에서는 아직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태로 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전하는 바가 크다.

이에 지난해 한우자조금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소득보험제도(농가가 평상시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격 폭락 등으로 농가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에 대해 79.6%의 농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74.1%의 농가는 가입하겠다고 응답해 소득보험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시급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며 경제강대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경제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과 호주, 앞으로 FTA를 체결할 예정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축산강대국이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앞서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부터 도모해야 할 것이다. ㉞

사육마릿수 단계별 관리매뉴얼

한우자조금,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마릿수 유지방안 연구용역 발표

한우자조금은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운영방안 및 한우 사육마릿수 수준에 따른 대응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지난해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마릿수 유지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단계별 관리목표 설정

이번 연구를 맡은 건국대 정경수 교수팀은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한우 비육우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시키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이미 발생했거나 단기에 예상되는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한우 사육마릿수의 순환주기는 총 9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1단계(부족단계, 가임암소 70만마리, 사육마릿수 180만마리)는 사육마릿수 자연 증가세를 보이는 시기로 정부개입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번식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단계(가임암소 70~90만마리, 사육마릿수 180만~220만마리)는 적정수준 접근단계로 입식 및 번식 자제를 권고하고 입식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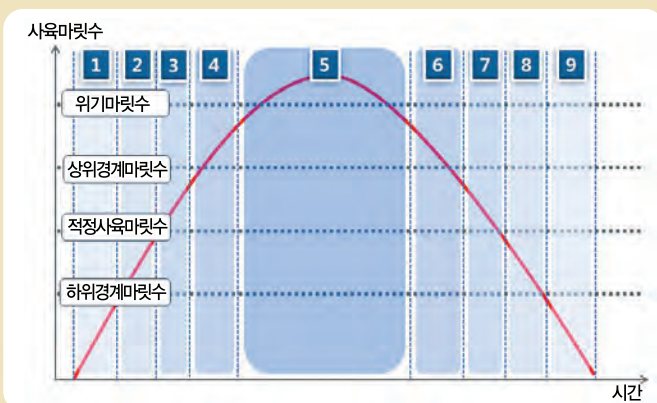
3단계는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는 기간으로 과잉단계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사육마릿수 증가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측,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분산출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단계는 ‘과잉단계’로 가임암소 마릿수는 110~120만마리이며 사육마릿수는 260~280만마리로 설정했으며 암소도태 장려금 등을 통해 생산감축을 유도하는 시기로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분산출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단계는 ‘위기단계’로 가임암소 마릿수는 120만마리 이상이며 사육마릿수는 280만마리 이상이다. 가격하락이 매우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소비촉진활동(할인판매, 군납확대)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6단계는 사육마릿수가 자연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로 가임암소 마릿수는 110~120만마리이며 사육마릿수는 260~280만마리로 암소감축 추진과 분산출하 유도로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사육마릿수 주기에 따른 단계





지속적인 소비촉진활동을해야 한다고 밝혔다.

7단계는 ‘적정단계’이며 8단계 및 9단계는 각각 ‘적정하위단계’와 ‘부족단계’로 7단계는 특별한 정부 개입은 필요 없는 시기이지만 8단계 및 9단계에서는 암소 입식 및 번식 활성화를 유도하며 입식지원금과 지자체나 축협 등을 통한 생산 장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한우 사육마릿수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한우 비육농가와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번식농가 경영안정 장치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재개편이 필요하며 비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앨버타 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㉞

▶ 한·육우 가격안정을 위한 사육마릿수 단계별 관리 방안

구분	가임암소수	사육마릿수	가격대	대응방안
1	부족단계 (증가세)	저점~70만마리	570만원 (500~610만원)	- 입식/번식 독려 - 사육마릿수 자연증가세로 별도 개입없음
2	적정수준 접근단계 (증가세)	70~90만마리	540만원 (530~540만원)	- 암소 입식 및 번식 자체 권고 - 입식관련 정부 지원 단계적 축소 - 시장기능 활성화
3	적정단계	90~100만마리	530만원 (480~620만원)	- 일체의 생산장려사업 중단 - 시장기능 유지 - 소비촉진 활동
	적정단계 (적정~초과)	100~110만마리	500만원 (450~540만원)	- 시장기능 유지 - 소비촉진 활동 - 사육마릿수 증가세에 대한 예의 주시 (관측, 정보 제공 강화)
4	과잉단계 (증가세)	110~120만마리	450만원 (440~480만원)	- 생산감축 유도시기 - 위기경보 발령 - 소비촉진 활동
5	위기단계	120만마리 초과	400만원 (280~530만원)	- 생산감축 유도시기 - 위기경보 발령 - 관측정보제공 강화 - 가격폭락대응 - 소비촉진 활동 - 생산비(사료구입자금)보조
6	과잉단계 (감소세)	120~110만마리	450만원	- 자연감소세로 크게 개입하지 않음 - 위기경보 시스템 유지 - 소비촉진활동 - 시장기능활성화
7	적정단계 (초과~적정)	110~90만마리	500~530만원	- 시장기능유지 - 생산장려정책 준비
8	적정하위단계 (감소세)	90~70만마리	540~550만원	- 암소입식 및 번식활성화 유도 - 입식지원금 단계적 증가 - 지자체·축협 등 생산장려금 사업추진 - 위기경보 발령
9	부족단계 (감소세)	70만마리 미만	570만원	- 암소입식 및 번식 장려시기 - 입식지원금, 축사시설 현대화 - 지자체·축협 등 생산장려사업활성화

한우농가와 ‘따뜻한 情’ 나눠요 전국 방방곡곡 설맞이 사랑의 한우나눔행사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봉사단체인 나눔과 동행은 지난 달 27일 서울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한우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불우이웃 등에게 한우사골떡국과 한우곰탕 등 1,200만원 상당의 한우 관련 제품을 전달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우사랑 나눔 봉사단과 연예인봉사단도 참석해 한우사골떡국 배식, 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고, 참석 연예인의 사랑의 나눔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달된 한우곰탕은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등촌동 관내 2300세대에 전달됐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1,000만원 상당의



◀ 1월 27일, 2월 4일
서울 한우나눔행사

한우고기를 전달해 따뜻한 한우농가의 정을 나눴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한우협회 경남도지회가 한우고기 6,4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경남도에 전달해 관내 200여 불우시설에 골고루 전달했으며, 울산시지회가 지난 27일 1,5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푸드뱅크를 통해 소외가정에 전달했다. ☺



▲ 1월 22일 경남 한우나눔행사



▲ 1월 27일 울산 한우나눔행사

저렴한 한우선물세트 판매 지원 최대 60% 할인, 유통업체 할인판매 동참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할인행사를 시작한 가운데 주요 대형유통매장은 물론 온라인 오픈마켓, 지역 영농조합법인 등이 할인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업체는 농협계통매장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 중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서원유통 등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 중에서는 옥션과 지마켓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됐다.

지역 영농조합법인 등에서는 강원 철원의 초원육가공, 충북 음성 진한우, 충남 공주 돈우, 영진고기백화점, 전북 완주에서는 소야영농조합법인, 화산한우영농조합법인, 완주한우협동조합, 전북 김제 전북한우협동조합, 전북 순창 이상춘영농조합법인, 전북 정읍 정읍한우판매장, 전남 여수 여



수한우협회 직매장, 담양 대숲포크, 경북 의성 의성서부한우회, 군위 이로운한우영농조합법인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업체에서는 최대 60%까지 저렴한 가격에 선물세트를 판매했고, 업체별로 할인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30~60% 할인을 실시했다.㉞

지난해 한우자조금 거출액 ‘사상 최고’ 도축마릿수 증가…전년보다 11% ↑ 185억5,000만원

한우 도축마릿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 한우자조금 거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도 한우자조금 거출액은 185억5,362만원으로 집계돼, 고지금액 대비 98.4%를 달성했다. 또 2012년도 거출금액 167억3,190만원에 비해서는 10.8% 증가했다.

특히 2013년도 실제 입금된 자조금은 189억8,284만원으로 고지금액 대비 100.66%를 달성했다. 이는 2013년 이전에 고지됐던 자조금이 추가로 입금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우자조금 거출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한우 도축마릿수가 2012년 84만 5,090마리에서 2013년에는 95만9,000여마리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미납 도축장에 대한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미납 자조금이 추가로 입금됐다. 한우자조금 사무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조금 거출률 향상과 미납 도축장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㉞

설 특집방송에 한우가 한 가득! 한우자조금,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협찬 진행

1월 16일 KBS2 생생 정보통 플러스



사골의 효과 · 효능에 대해 소개한다.

1월 23일 SBS 생방송 투데이



한우선물세트로 행복한 가족과 한우 사골의 우수성을 알린다.

1월 24일 SBS 생활경제



설명절 싸고 좋은 한우 구입 방법을 소개한다.

1월 27일 SBS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청계 직거래장터를 연결해 한우할인판매를 알린다.

1월 31일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연예인이 한우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체험 삶의 현장이 펼쳐진다.

2월 2일, 9일 SBS 이영애의 만찬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식속의 한우의 맛을 찾는다.

선물세트 협찬 방송

일자	매체명	프로명	일자	매체명	프로명
1/30	MBC	스타 님은꼴 최강전	2/1	MBC	무한 도전
1/30	KBS 2	엄마를 부탁해	2/1	MBC	세바퀴
1/31	SBS	스타 페이스 오프	2/1	SBS	붕어빵
1/31	KBS 2	배워야 산다	2/2	KBS 2	출발 드림팀

1월 한우 가격 동향과 소득 추정

◆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 분			평년 (‘09~’13)	2013년		2014년		대비	
				’12.12월 (A)	’13.1월 (B)	’13.12월 (C)	’14.1월 (D)	C/A	D/B
도축마릿수(마리)			654,734	71,237	118,009	87,601	121,751	23.0	3.2
경매마릿수(마리)			246,000	35,479	51,082	43,817	51,754	23.5	1.3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수취가격, 천원/마리)	평균		14,167 (5,076)	12,674 (4,540)	13,158 (4,713)	14,177 (5,078)	14,376 (5,149)	11.9	9.3
	거세우		15,256 (5,483)	14,257 (5,124)	14,304 (5,141)	14,837 (5,332)	14,766 (5,307)	4.1	3.2
	비거세우		10,913 (3,870)	10,909 (3,868)	11,568 (4,102)	11,678 (4,141)	12,132 (4,302)	7.0	4.9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마리)	암소		4,442	3,471	3,533	4,145	4,161	19.4	17.8
	송 아 지	암	1,983	861	964	1,344	1,445	56.1	49.9
		수	2,124	1,523	1,664	2,033	2,248	33.5	35.1
불고기 (1등급 원/kg)			33,287	32,650	32,940	30,510	31,480	△6.6	△4.4
등심 (1등급 원/kg)			64,477	61,120	61,860	60,710	62,090	△0.7	0.4

* '13년 한우 비육우 생산비(5,585천원/600kg, KREI 추정치), 경영비(4,470천원/600kg, KREI 추정치)

*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 한우농가 소득 추정 ('14.1월 한우평균 도매가격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	17,445	6,249	4,470	1,779
1 ⁺	15,724	5,632		1,162
1	14,496	5,192		722
2	12,626	4,523		53
3	11,026	3,950		△520

* 경영비 : 생산비 - (자가노력비 + 각종 자본이자)

* '13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470천원/600kg, KREI 추정치)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호프집 등 **금연구역 확대** 과태료 10만원 부과

올해부터 100㎡(약 30평)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7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발췌 : 뉴시스·경남일보]

2015년부터는 금연구역 전면 지정

지난 2012년 12월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구역이 시행된데 이어 올해부터 100㎡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100㎡ 이상 150㎡ 미만 음식점·호프집·제과점 7만 곳이 추가로 금연구역이 됐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인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는 있다. 영업주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50~60만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4대 중증질환 의료서비스 건보 적용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각종 검사가 순



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지난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했고 올해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검사 등으로 확대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7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된다.

지난해 75세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이상, 2016년은 65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들니 보험 적용(75세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만 12세이하 어린이는 B형간염, 수두 등의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기초연금·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눈길’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이 눈에 띈다.



정부안은 오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하는 안을 담았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이견이 커 대상과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으로 다층화 했다.

복지부는 급여체계 개편 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에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12년이상 노후자 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㉞

무병장수 · 풍년 기원 ‘떡국’

사골에 양지머리 우려낸 뜨끈한 육수 ‘깊은 맛’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함유...가족 보양식

[출처 : 농촌진흥청]



새해 첫날 아침에 먹는 떡국은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겨우내 허약해진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가 만점의 음식이기도 하다. 떡국하면 으레 만드는 법이 비슷할 것 같지만 지역에 따라, 재료에 따라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떡국은 예전에는 ‘떡을 넣고 끓여낸 탕’으로 ‘병탕(餅湯)’ 또는 ‘병갱(餅羹)’으로 불렸다. 또한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 첨세병(添歲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 제례음식 ·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

정확히 언제부터 떡국을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에 관해 기록된 문헌인 ‘동국세시기(1849)’와 ‘열양세시기(1819)’에 의하면 제례음식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 아침에 먹었으며, 손님 접대용 음식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의 문헌인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1937~1946)’에서는 설에 먹는 풍속으로 상고시대에 새해 제사 때 먹던 음식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한다. 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은 그 형태를 길고 가늘게 만든 데에는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A · C · E 함유

또한 떡국은 보통 쇠고기육수나 멸치육수에 가래떡과 파를 넣고 끓여서 달걀지단과 고기꾸미를 얹어서 먹는데 1인분에 열량이 약 475kcal 정도다. 재료에 따라 칼로리는 달라지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A · C · E, 조섬유 등이 들어가

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이다.

떡국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보면 주재료인 떡은 쌀로 만들어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돼 있다. 게다가 같이 들어가는 부재료인 파는 국물 재료인 멸치나 쇠고기의 냄새를 없애는 역할을 하며, 비타민이나 칼슘, 철분 등이 포함돼 탄수화물 중심의 떡국에 미량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 올라가는 고명인 양념에 무친 고기와 달걀지단은 맛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떡국을 먹을 때는 나물이나 심심한 김치를 함께 곁들이면 섬유소나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다.

사골, 양지머리, 사태 고아만든 육수 깊은 맛

떡국의 장국은 사골과 양지머리, 사태 등을 오랫동안 고아서 만든 것이 깊은 맛을 낸다. 바로 육수를 만들 때는 한우고기를 잘게 썰어서 양념하여 볶다가 물을 부어 육수를 만든다. 떡국 위에 얹는 꾸미는 지방은 각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다진 고기를 볶아서 얹기도 하고, 온면처럼 오색의 채 고명을 얹거나, 고기 산적을 작게 지져서 얹기도 한다.

떡국은 지역별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개성 지역의 조랭이떡국, 충청도 지역의 구기자떡국 · 다슬기떡국 · 미역생떡국, 전라도 지역의 두부떡국 · 꿩떡국 · 굴떡국, 경상도 지역의 태양떡국 · 굴떡국 · 메밀떡국 등이 유명하다. 또한 쇠고기 · 닭고기 · 꿩고기 · 굴, 미역 등 어떤 것으로 국물을 우려내느냐에 따라, 고명으로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 각양각색의 맛이 나온다. ☺



올해부터 토종가축 인정제 및 동물등록제도 전국단위 확대

올해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돼 토종가축으로 표시·판매가 가능하고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됐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우선 1월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돼 토종가축을 인정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게 됐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다. 대상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개 축종으로 한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만이 대상이었던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로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내년 2월 22일까지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축산관련 의무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 할 수 없는 읍·면이나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애독자코너

일본·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도입된 제도가 없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농가가 평상시 보험료를 지불하고 농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OOOO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13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1월호 당첨자의 새해소원을 소개합니다.

- ▶ 소 사료값은 내려가고 소값은 올라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박윤서 - 강원 홍천군)
- ▶ 송아지 한 마리로 실패하지 않기를 남편과 소원을 빌어봅니다. (김아영 - 경기 이천시)
- ▶ 한우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웃음이 퍼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순환 - 서울)
- ▶ 한우값이 폭등해 한우농가의 근심걱정이 확~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순호 - 충남 태안군)

※ 1월호 한우자조금 소식지 표지 이승기 씨의 순위치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과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여러분!

한우송 쿨링 신청하세요~

휴대폰 통화연결음을
한우송으로 즐겨보세요!

통화연결음이란?

- 상대방에게 휴대 전화를 걸 때 벨소리 대신에 들리는 음악

신청방법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하기
- 주소 : www.hanwooboard.or.kr

신청대상

- 한우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신청비용

- 무료 서비스(자조금 부담)

기타사항

- 기존 사용자가 음원을 변경하실 경우 신규 신청
- 음원 신청 후 바로 사용가능

문의사항

- 한우자조금 사무국 홍보마케팅부
(☎02-522-3608)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한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비즈링 신청

비즈링 신규 신청

비즈링 음원미리보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비즈링 신청기간입니다. 신청하신 다음날 자동 설정됩니다.
(단,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신청하신 고객은 월요일에 설정됩니다.)

비즈링 비즈링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합니다.

비즈링 신청기간 동안 개인 통화연결음 서비스 할 경우 900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존 통화연결음 서비스 가입자도 비즈링을 이용하면 할 경우 900원이 감면됩니다.)

비즈링은 월요일~일요일, 24시간 설정됩니다.

• 음원선택	
• 신청자명	
• 매월통신사	SKT ☒ KTF ☐ LGT ☐
• 휴대번호	010 - -
• 연락처	☐ 직입력 ☐ 신청자와 동일
• 영의주연번호	
• 영의주연번호	
비즈링 신청 시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면 비즈링 설정이 늦어지거나 안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잘못 선택한 경우 통신사 및 영의주연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후 다음 해 주연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연월일과 영의주연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휴대폰이 일시 정지 상태이거나 로밍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비즈링 재가입 및 수정 신청 휴대폰 통신사 변경 및 번호변경 등으로 신청 정보가 바뀐 경우 반드시 비즈링 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즈링 신규신청 시 신청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영의주 연월일과 주연등록번호를 정확히 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대금	
• 주연번호	
신청하기	

비즈링 신청 시 유의사항

비즈링 신청 시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면 비즈링 설정이 늦어지거나 안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잘못 선택한 경우
통신사 및 영의주연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후 다음 해 주연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연월일과 영의주연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휴대폰이 일시 정지 상태이거나 로밍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비즈링 재가입 및 수정 신청

휴대폰 통신사 변경 및 번호변경 등으로 신청 정보가 바뀐 경우 반드시 비즈링 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즈링 신규신청 시 신청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영의주 연월일과 주연등록번호를 정확히 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Tel 1544-3205 (상담시간: 월 ~ 금요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비즈링 관련 문의 및 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05호 (주요사업 / 대표전화 1544-3205 / fax 02-5445-9786)
사업등록번호 211-87-7885